



# “광주FC 쇄신 위해 축구인생 노하우 쏟겠다”

최만희 대표, 초대 감독 이어 첫 전임대표 ‘1호’ 기록  
행정·경영 경험 축적...“시민과 원팀 만들겠다” 각오  
전남드래곤즈 이광수 사장 선임...2021 시즌 새출발

‘광주FC의 초대 감독에서 첫 전임대표 이사까지...’ K리그 ‘1호 박사’ 최만희 대표의 도전은 계속된다.  
광주는 4일 광주축구전용구장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와 제44차 이사회를 열고 최만희 전 부산 아이파크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정원주 대표이사에 이어 대표이사를 맡게 된 그는 이번에도 광주의 ‘1호’ 기록을 만들게 됐다. 광주의 첫 상근직 대표이사가 된 그는 단장까지 겸하면서 혁신의 중심에 서게 됐다.  
K리그의 ‘1호 박사’로 새로운 길을 열었던 최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코치, 전북현대 감독(1997~2001) 등을 거쳐 지난 2011년 고향

팀 광주의 초대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13년 파주 축구국가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 센터장을 시작으로 대한축구협회 대외협력기획단 단장을 거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 아이파크 대표이사를 맡아 행정과 경영을 두루 경험했다.  
사무국 내분 등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현장과 행정을 모두 잘 아는 그는 광주 개혁의 중임을 맡았다. 이에 맞춰 구단은 모든 법인화 작업을 통해 최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 구단의 안정화와 선수단 중심의 효율적인 운영체계 확립에 집중할 예정이다.  
최 대표이사는 전북 감독 시절 김호영 감독과

사제지간은 물론 동료 스태프로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의 초대 감독으로서 구단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점도 강점이다.  
또한 최 대표이사가 광주시 축구협회 통합 2대 회장까지 겸임하는 만큼 아마와 프로를 아우르면서 광주 축구의 전반적인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초대 감독 시절 ‘비밀밥 축구’를 내세워 조직력을 바탕으로 광주의 매운맛을 보여줬던 그는 이번에는 ‘시민과 항상 함께’(always with the citizen)를 외치고 있다.  
최 대표이사는 ‘시민’을 우선으로 해 탄탄한 광주를 만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10년을 돌아 감독이 아닌 대표이사로 광주에 오게 됐다.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축구계에 몸담으며 얻은 40년간의 노하우를 고향팀 광주에 쏟아 붓겠다”며 “조작이 침체 돼 있다. 조직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 앞으로 광

주에는 유소년 축구가 중요한데 협회장을 겸하면서 큰 틀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생활체육을 하는 시민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활기찬 경기장을 만들어가고 시민과 함께 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이 잘하는 것이다. 선수들이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김호영 감독과 선수 구성을 먼저 고민하고 준비하겠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많이 격려하고 지켜 봐달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전남드래곤즈도 2021시즌 이광수 대표이사 체제로 새로 출발한다.  
전남은 4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이광수 광양제철소 행정섭외그룹장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해남 출신인 이광수 사장은 1992년 포스코에 입사해 인사노무 분야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았으며, 광양제철소 인사노무그룹장과 행정섭외그룹장을 역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시즌 5승...최다승 경신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창단 이래 시즌 최다승 기록을 경신했다. ‘무려 5승’이다.  
잘나가는 팀에게 5승이 대수로울 것 없지만, 광주도시공사로서는 작은 ‘기적’이다. 지난 2010년 창단 이래 9년 동안 12승에 그친 팀이었다. 그런데, 지난 시즌에 4승을 올린데 이어 올 시즌 5승을 기록했다. 이 팀의 올시즌 목표는 리그 참가 8개 구단을 모두 이겨보는 것이다. 최소 8승이다.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3일 열린 SK핸드볼코리아리그 2라운드에서 서울시청을 37-27로 꺾었다.  
광주도시공사는 승점 13점(5승 3무 3패)으로 여자부 4위를 유지했다.  
주전들의 고른 득점이 승리요인이었다. 강경민이 득점 포문을 열었고 다양한 루트에서 골이 터졌다.  
강경민(9골), 서아루(6골), 정현희-김지현(5골), 원선필(4골)이 득점을 이끌었다.  
신인 이슬기(2골), 박지영(1골)도 승리에 힘을 보태는 등 신·구 선수들의 협공이 빛났다.  
올시즌 서울시청에서 이적해 광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골키퍼 손민지는 승리를 지켜냈다.  
손민지는 이날 친정팀을 상대로 방어율 45.7%를 찍는 활약을 선보였다.  
서아루는 8개의 슈트 가운데 6개(성공률 75%)를 꽂아넣어 경기 MVP로 뽑혔다.  
오세일 감독은 “기존 선수뿐 아니라 새로 입단한 손민지, 정현희가 빠른 적응력으로 제 몫을 해준 덕분에 이길 수 있었다”며 “후반에 투입된 신인 선수들도 과감한 플레이로 득점을 올려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강성훈 PGA 천만장자 예약 상금 1천만달러 올 200명 넘을 듯

미국프로골프(PGA)투어에서 받은 상금이 통산 1천만 달러(약 108억5765만 원)가 넘는 선수가 올하는 200명을 넘어선다.  
올해 맨 먼저 천만장자에 오를 주자는 통산 상금 순위 199위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다.  
작년까지 PGA투어에서 999만9235달러의 상금을 번 플리트우드는 새해에 765달러만 보태면 상금 천만장자의 반열에 오른다.  
200번째 천만장자로 유력한 후보는 강성훈(34)이다.  
강성훈은 작년까지 954만9730달러를 모았다. 45만270달러를 더 받으면 천만장자가 된다. 45만 달러는 어지간한 PGA투어 대회에서 3위 이내에 들면 받는 금액이다.  
2017년 이후 한 시즌도 상금 수입이 100만 달러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 강성훈이 올해 1000만 달러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통산 상금 199위 플리트우드와 206위 강성훈 사이에 6명이 포진했지만, 모두 은퇴했거나 최근 활약이 미미한 선수라 강성훈이 200번째 천만장자가 될 것이 유력하다.  
/연합뉴스



눈길 헤치고... 프랑스의 조세핀 폴리니가 3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슬에메 산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2021 스노우 퀸 트로피 여자 알파인스키 슬라럼 경기에서 폼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펠레 넘은 ‘호날두’

우디네세전 멀티골 통산 758골...세리에A 득점 선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포르투갈)가 새해 첫 경기에서 멀티 골에 도움까지 올리는 맹활약으로 개인 통산 758골을 기록하며 ‘축구 황제’ 펠레(브라질·757골)를 넘어서며 유벤투스의 대상을 이끌었다.  
유벤투스는 4일(한국시간) 이탈리아 토리노의 알리안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2021 세리에A(1부리그) 15라운드 홈 경기에서 호날두의 2골 1도움 활약을 앞세워 우디네세를 4-1로 물리쳤다.  
지난 라운드 피오렌티나에 0-3으로 져 이번 시즌 리그에서 첫 패를 당했던 유벤투스는 대승으로 반등, 리그 5위(승점 27)에 이름을 올렸다.  
2연패를 당한 우디네세는 13위(승점 15)에 자리했다.  
전반 10분 우디네세의 로드리고 데 파울이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오른발 슈트로 골 그물을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그가 볼을 따

내는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이 지적되며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실점 위기를 넘긴 유벤투스는 전반 31분 호날두의 선제골로 포문을 열었다. 호날두는 에린 램지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 지역 왼쪽을 돌파한 뒤 오른발 슈트를 꽂았다.  
호날두는 후반 4분엔 역습 상황에서 수비 뒷공간을 노린 절묘한 패스를 찼었고, 페데리코 키에사가 왼발로 마무리해 유벤투스가 두 골 차 리드를 잡았다.  
후반 7분 램지의 골이 VAR을 통해 핸드볼 파울로 취소되는 상황도 있었지만, 유벤투스는 후반 25분 호날두의 추가 골이 터져 승리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이를 포함해 이번 시즌 리그에서 14골을 터뜨린 호날두는 2위 로멜루 루카쿠(인터 밀란·12골)에게 두 골 앞선 세리에A 득점 선두에 올랐다.  
/연합뉴스

## 라리가 500경기 ‘메시’

바르샤 원팀으로 대기록...우에스카전 어시스트까지

리오넬 메시(34)가 스페인 프로축구 FC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500번째 프리메라리가(라리가) 경기에 출전, 어시스트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메시는 4일 스페인 열린 2020-2021 라리가 17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로 우에스카를 상대로 자신의 리그 통산 500번째 경기에 나섰다.  
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을 거쳐 2004-2005시즌부터 1군 무대에서 뛰어난 메시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라리가 500경기를 포함해 총 750경기에 출전했다.  
리그 500경기는 사비 에르난데스(알 사드 감독)의 505경기에 이어 바르셀로나 소속 역대 2위 기록으로, 메시는 6경기에 더 출전하면 역대 1위에 오르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비가 보유한 바르셀로나 소속 전체 공식전 최다 출전 기록인 767경기 경신도 가시권이다.  
/연합뉴스

역사적인 경기에서 메시는 전반 27분 프랭크 더용의 결승 골을 어시스트해 바르셀로나가 1-0 승리를 거두는 발판을 냈다.  
메시가 왼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띄웠고, 더용이 골 지역 중앙으로 달려들며 뛰어올라 오른발 슈트를 꽂았다.  
이 도움을 포함해 메시는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리그 500경기에서 451골 185도움을 올려 369승에 앞장섰다.  
지난달 23일 바이올리노와의 15라운드에선 프로 통산 644번째 골을 터뜨려 펠레가 브라질 산투스에서 남긴 643골을 뛰어넘는 ‘단일 클럽 통산 최다 골’ 기록을 깨뜨리는 등 수많은 이정표를 세웠다.  
프로 생활을 바르셀로나에서만 보낸 메시가 팀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앞으로 그가 바르셀로나에서 몇 경기를 더 뛰릴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